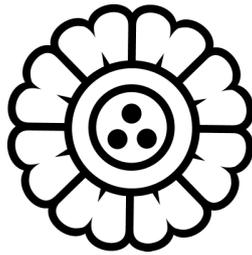


불기2562(2018)년
포교사 지역단 분야별 연수



- 일 시 : 불기 2562(2018)년 6월 2일(토) 13시
- 장 소 : 무각사 불교대학

대한불교조계종 **광주전남지역단**
포교사단

2018년 분야별연수

▶ 세부일정

시 간	분량	프로그램	비 고
13:00-13:30	30	< 입 재 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삼귀의 / 한글반야심경봉독 • 포교사의 노래 • 지역단장 인사말씀 • 포교사단장 격려의 말씀 • 시상 	
13:30-14:20	50	특강 : 포교사의 자세와 역할	지도법사
14:20-14:30	10	휴 식	
14:30-16:30	120	<분야별 활동 사례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청소년 분야 • 군포교 분야 • 문화예술 분야 • 복지 분야 	-발표 : 각 팀장
16:30~17:30	60분	분야별토론	
17:30~18:00	30	지역단장 평가 및 회향식	

* 상기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한글반야심경

마하반야바라밀다심경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사리자여!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이니-, 수 상 행 식도- 그러하니라-.
사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공-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 상 행 식도- 없으며-,
안 이 비- 설 신 의도 없고,
색 성 향- 미 촉 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이- 다함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늙고 죽음이- 다함까지도- 없고,
고 집 멸 도도- 없으며-, 지해도- 연음도- 없느니라.
연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하므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하므로-
최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바라밀다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반야바라밀다주를 말하리라.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 사바하(3번)

포교사의 노래

선진규 글
김용호 곡

중간속도로 당당하게

1. 어 두 운 세 상 에 - 법 등 을 들 고
2. 누 리 를 헤 쳐 가 는 법 률 을 굴 려

한 없 이 가 야 하 는 포 교 의 길 -
끝 없 이 가 야 하 는 홍 법 의 길 -

발 길 달 는 구 석 마 다 불 법 을 퍼 고 -
만 나 는 - 중 생 마 다 지 혜 를 밝 혀 -

중 생 위 한 발 - 원 에 밤 을 지 샌 다 -
불 국 토 - 건 설 위 해 몸 을 던 진 다 -

(후렴)
아 - 아 - 그 는 외 로 운 구 도 자 사 명 의 역

군 - 진 리 를 전 하 는 포 교 사 여 라 -

불기 2562년 분야별 연수를 맞이하여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불법홍포에 여념이 없으신 광주전남지역단 포교사 여러분 반갑습니다.

포교사단은 올해로 창립 18주년을 맞이하여 성년(成年)의 조직이 되었습니다. 창단 이후 많은 역경을 딛고 단원 수, 조직력, 재정자립도, 포교역량 등 여러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이는 우리 포교사님들의 깊은 신심과 원력 그리고 각고의 노력이 이루어낸 결과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늘 변함없이 포교활동에 매진하고 계신 광주전남지역단 포교사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포교사단은 기존의 분야별연수가 시간과 장소의 제약으로 충분한 연수가 되지 못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작년부터 오프라인(Off-Line)과 온라인(On-Line) 교육을 병행하여, 오프라인에서는 사례발표와 특강 중심으로 진행하고, 분야별 교육은 온라인 동영상 수강으로 장소와 시간적으로 구애됨이 없이 반복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작년 온라인강좌 수강률은 28%로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광주전남지역단 포교사 여러분!

현재 제7대 포교원은 포교사들의 합당한 지위와 역할 정립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응하여 우리 포교사들도 수행은 물론 포교역량을 키우는 데 소홀함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분야별 연수를 하고 포교역량을 키우는 것은 궁극적으로 많은 사람의 안락과 이익을 위해서이며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시대변화에 부응한 포교활동과 이를 위한 학습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삶을 지혜롭게' '마음을 자비롭게' '세상을 평화롭게'를 슬로건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신행혁신운동에 주인의식을 가지고 적극 참여하여 이 시대의 무명과 어두움을 밝히고 많은 사람들을 행복으로 이끄는 길이 되도록 더욱 정진합시다. 감사합니다.

불기 2562(2018)년 6월 00일

포교사단 단장 대혜 윤기중 합장

불법승 삼보에 귀의 합니다

불기 2562년 분야별연수를 맞이하여 각자의 활동팀에 소속되어 초심을 잃지 않고 씬 없이 정진하는 포교사님들의 굳은 의지와 돈독한 신심에 경의를 표합니다.

포교의 사각지대에서 전법의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자랑스런 포교사님!
금번 분야별연수는 다시 한 번 포교사로서의 자세를 가다듬고 포교현장에서 획득한 전문적인 노하우를 함께 공유하고 각오를 다지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포교의 일선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포교활동 사례발표와 토론을 통하여 보다 창조적이고 참신한 모델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연수가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오늘날 불교계가 격고 있는 고통은 새로운 변화를 갈망하는 산모의 진통 같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변화는 미래의 희망의 집을 짓는 것이요, 발전의 초석을 이루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더불어 그 근간은 교육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분야별연수를 통하여 보다 역량 있고, 수준 높은 포교사의 면모를 갖추 불법홍포에 앞장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포교사들은 수행과 구도, 포교의 서원을 세운 불제자 입니다. 포교사들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를 부처님 것임을 명심하여 항상 마음속 불성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음을 잊지 마시고 초발심으로 돌아가 포교하고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포교는 부처님을 향한 한없는 사랑을 이어나가는 길입니다. 비록 짧은 시간의 연수교육이지만 팀별, 개인별 상호 정보 교류를 통하여, 시대에 뒤쳐지지 않고 시대를 리더 하는 포교사로 거듭나시길 간절히 발원합니다.

불기2652(2018)년 6월 2일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단 광주전남지역단장 자안 윤중근

포 교 사 의 다 짐

다음과 같이 중단의 포교사로서 신명을 다하여 정진할 것을 삼보님 전에 엄숙히 다짐합니다.

첫 째, 포교사로서 부처님의 정법을 수호하고 교단을 옹호하겠습니다.

둘 째, 포교사로서 청정한 마음가짐으로 끊임없이 정진하겠습니다.

셋 째, 포교사로서 보시를 행하며 무소유의 삶을 실천하겠습니다.

넷 째, 포교사로서 항상 계를 지녀 삼업을 청정이 지니겠습니다.

다섯째, 포교사로서 포교사의 품위를 지키며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여섯째, 포교사로서 기쁨이 가득한 화목한 가정을 이루겠습니다.

일곱째, 포교사로서 이웃의 행복을 위해 불법을 홍보하겠습니다.

여덟째, 포교사로서 직장과 사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홉째, 포교사로서 고통받는 어려운 이들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열 째, 포교사로서 항상 하심하는 봉사자가 되겠습니다.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시아본사 석가모니불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단 광주전남 지역단 포교사 一同

포교사단 단원의 의무

1. 포교활동 팀에 소속하여 활동합니다.

조계종 포교사는 반드시 팀에 소속되어 활동해야 하며 월례 모임 등 정기적인 팀 모임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개인포교활동의 내용과 성과를 팀원들과 서로 공유하며 활동보고서를 팀장에게 제출합니다.

2. 포교 활동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조계종 포교사는 포교활동의 내용과 소감 및 개선방안을 포교사단에서 정한 개인 활동보고서 양식을 기준으로 하여 상/하반기에 팀장을 경유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팀 차원에서 활동하는 내용은 팀장이 작성하여 지역단에 제출합니다.

3. 교육, 연수를 이수해야 합니다.

조계종 포교사는 포교원과 포교사단에서 주관하는 교육 및 연수에 참여하여 포교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포교방법에 대하여 발제, 토론,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4. 단비를 CMS로 납부해야 합니다.

조계종 포교사는 포교사단 전체의 발전을 위해 일정금액의 단비를 금융결제원의 자금관리서비스(CMS)방식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5. 입단비를 납부 해야 합니다.

포교사로 품수함과 동시에 입단비 10만원을 납부합니다.

6. 인터넷 사용이 가능해야 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는 인터넷 사용이 필수입니다. 우편으로 발송되는 공지 또는 안내문 발송이 최소화 되고, 포교사단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공지사항과 소식을 확인하도록 하며 교육까지도 사이버상으로 일부 진행되고 있습니다.

1. 전국 포교사 현황

▶ 지역/분야별 팀 현황

(단위 : 명)

지역 분야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충남	광주 전남	전북	강원	충북	인천 경기	경남	울산	제주	경북	미주	합계
어린이	5	4		1	1	2	1	2	2		1				19
청소년		2	3	1						6			1		13
대학/청년			1				2				1				4
직장포교			1							1	1				3
군포교	13	6	5	3	4	3	6	4	3	8	2	2	7		66
경찰	1	1	1	2							1				6
교정교화	4	1	2	1	3	2	2		2	1		2	1		21
염불포교	1	2	6	1	2	2	2	2		1	2	3	2		26
자원봉사		8		1	5	1			1	6	2		6		30
상담포교			1	2	1								1		5
지역봉사	6	6	8	8		4	5	6	12	1			1	2	59
사찰문화	1	4	5	4	3	2	4	1	2	4	3	3	6		42
문화예술	1	1	1		2	1	1						1		8
NGO (무소유천)	2	1	1												4
홍보분야	2	2	1			2		1		1	1		1		11
환경			1												1
호스피스						1		1	1						3
미활동 (무소유)									1		1		1		3
교육분야															0
통일분야	2								1						0
기 타	1						4								0
합 계	36	38	37	24	21	20	23	17	24	29	15	10	28	2	324

<2018년 5월 현재>

▶ 지역/분야별 활동인원현황

(단위 : 명)

지역 분야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충남	광주 전남	전북	강원	충북	인천 경기	경남	울산	제주	경북	미주	합계
어린이	68	47		12	15	12	16	14	28		10				222
청소년		32	39	11						45			8		135
대학/청년			14				33				10				57
직장포교			15							9	12				36
군포교	189	105	69	35	57	28	82	49	50	89	22	33	91		899
경찰	14	20	11	20							10				75
교정교화	64	23	14	8	54	11	26		28	4		32	4		268
염불포교	16	31	95	12	47	42	27	23		10	22	49	41		415
자원봉사		140		11	85	25			18	56	11		91		437
상담포교			12	14	17								4		47
지역봉사	87	107	135	68		19	67	81	207	10			6	53	840
사찰문화	7	65	76	48	71	13		20	37	45	37	42	80		541
문화예술	17	22	18		25	6	19						4		111
NGO (무소유천)	102	36	16												154
홍보분야	13	27	9			13		16		27	11		7		123
환경			17												17
호스피스						12		16	17						45
미활동 (무소유)									39		9		7		55
교육분야															0
통일분야	26								16						42
기 타	10					2	63			1				8	84
합 계	613	655	540	239	371	183	333	219	440	296	154	156	343	61	4,603

<2018년 5월 현재>

▶ 포교사 연령별 현황

(단위 : 명)

소속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합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서울																
부산	1		1	1	10	22	83	179	149	126	41	16	2	4	287	348
대구				8	10	28	83	254	155	145	28	10	2		278	445
대전				4	15	27	91	176	131	91	22	9	1		260	307
충남																
광주	1		1		4	31	64	114	87	44	16	7	1	1	174	197
전남																
전북	2				7	39	74	119	80	45	13	6		1	177	210
강원					6	4	47	31	57	25	16	3	1		127	63
충북					7	22	64	93	93	49	19	5	1		184	169
인천				1	3	13	44	78	37	38	8	5	2		94	135
경기																
경남			4	2	12	19	70	107	94	62	27	10	1	1	208	201
울산				5	8	25	67	77	60	29	6				141	136
경북				7	4	27	26	46	38	17	2	1			70	98
제주				3	7	16	81	113	71	34	11	2	1		171	168
미주						8	19	54	17	30	6	3	1		43	95
기타					1	2	1	2	2	4	3		1		50	8
합계	4	0	6	31	94	283	814	1,443	1,071	739	218	77	14	7	2,264	2,5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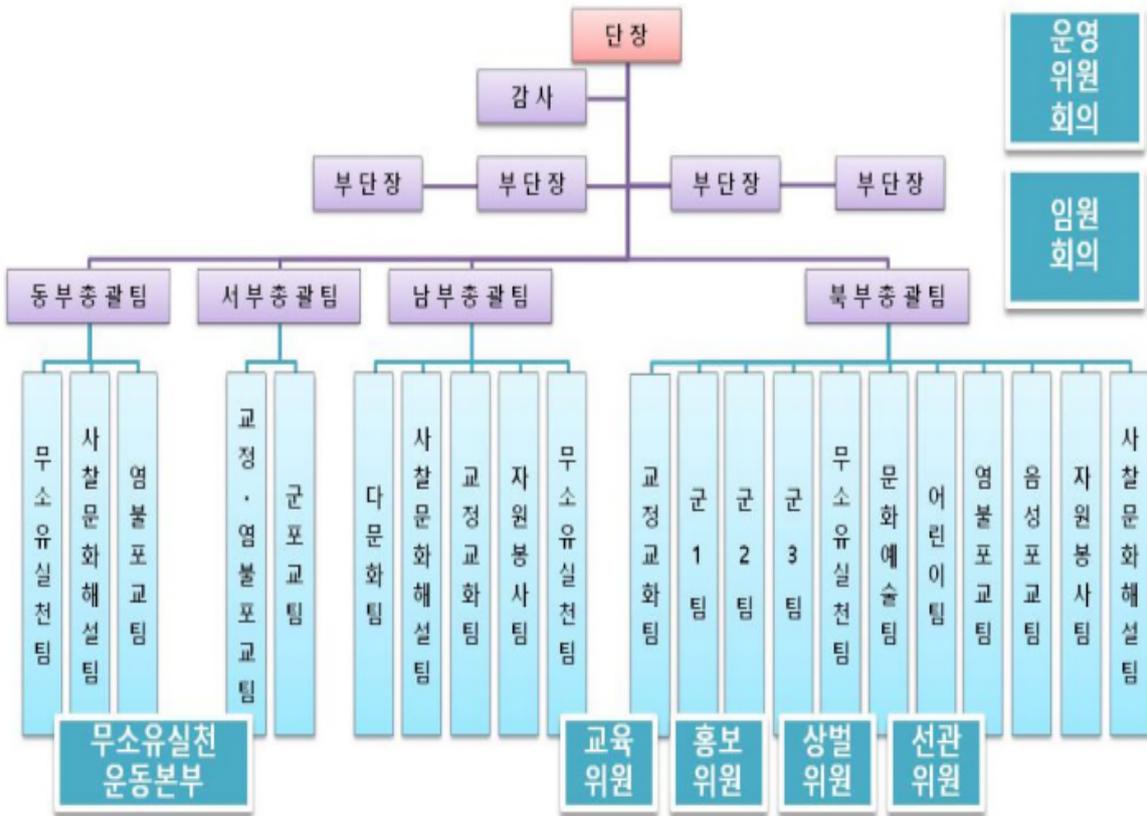
<2018년 5월 현재>

2. 광주전남지역단 현황

연 혁

- 1999. 12. 7 : 광주전남포교사단 정관 제정 및 제1기 임원 선임
- 2000. 1. 1 : 제1대 출범(단장 연각 정찬구)
- 2000. 7. 13 : 세정 이성수단장 승계 초대 단장역임
- 2002. 1. 1 : 제2대 출범(단장 세정 이성수)
- 2004. 1. 1 : 제3대 출범(단장 심우 김인수)
- 2006. 1. 1 : 제4대 단장 월인 백남용 취임
- 2007. 8. 1 : 광주전남지역단 사무실 이전(향림사 ⇒ 불교회관)
- 2008. 1. 1 : 제5대 단장 월인 백남용 재임
- 2010. 1. 1 : 제6대 단장 범진 정영균 취임
- 2012. 1. 1 : 제7대 단장 범정 정영균 재임
- 2014. 1. 1 : 제8대 단장 선철 김정연 취임
- 2016. 1. 1 : 제9대 단장 선철 김정연 재임
- 2016. 12. 3 : 제9대 자안 윤중근 단장 취임
- 2018. 1. 1 : 제9대 자안 윤중근 단장 취임
- 2018. 2. 3 : 제 23기 포교사고시
- 3. 9 : 포교사고시 1차 합격자 발표
- 3. 11 : 포교사 출범 및 포교사의 날 기념법회, 대의원총회
- 6. 2 : 2018분야별연수

조직도



일반포교사 현황

▶ 총원

정 회원		
남	여	합계
174	197	371

▶ 연령별 현황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합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1		1		4	31	64	114	87	44	16	7	1	1	174	197

▶ 분야 / 포교팀별 현황

(단위 : 명)

분 야	명 칭	팀장성명	팀장법명	정 원
계 총	북부총괄 어린이팀	김기정	청 봉	15
군포교 분야	서부총괄 군포교팀	김병식	심 원	14
	북부총괄 군1팀	송상근	금 선	13
	북부총괄 군2팀	이성환	도 심	15
	북부총괄 군3팀	정순갑	보 조	15
교정교회 분야	북부총괄 교정교회팀	안수길	덕 진	22
	서부총괄 교정·염불포교팀	김수미	보리심	17
	남부총괄 교정교회팀	박창훈	경 탐	15
복지 분야	북부총괄 염불포교팀	조기남	덕 원	30
	동부총괄 염불포교팀	박정숙	일륜행	17
	북부총괄 자원봉사팀	김경하	환희심	23
	동부총괄 무소유실천팀	김한석	보 공	14
	남부총괄 무소유실천팀	이병관	자 운	20
	북부총괄 무소유실천팀	한귀님	명진보	13
	남부총괄 자원봉사팀	이병길	법 등	15
	남부총괄 다문화팀	오복영	월 광	17
문화·예술 분야	동부총괄 사찰문화해설팀	윤호식	진 월	26
	남부총괄 사찰문화해설팀	이상규	태 능	29
	북부총괄 사찰문화해설팀	박태백	보 각	16
	북부총괄 문화예술팀	김성일	성 관	13
	북부총괄 음성포교팀	김미옥	연화덕	12

<2018년 5월 현재>

▶ 팀별 명단

명 칭	명 단
북부총괄 어린이팀	강금단 김기정 김은아 김일홍 김재올 김치갑 박승자 손덕임 선영선 안숙희 안은진 양애영 이효숙 정은아 최유리
서부총괄 군포교팀	김병식 김정숙 김정연 문용주 박연자 박영수 방순량 신면호 윤은미 이윤기 정영균 장혜운 최옥춘 한영심
북부총괄 군1팀	김병중 김순희(원각심) 송상근 신영우 안규춘 유천호 이승재 이정연 임경수 정영진 정운구 정영진 편봉식
북부총괄 군2팀	강진옥 김홍철 노정선 박상은 박영 봉덕중 운영남 이성환 장계연 장남이 장현주 전은순 주남명 최귀숙 최민석
북부총괄 군3팀	강민주 고영남 김경태 김성두 김순희(대덕화) 김종미 김훈희 박규형 백남용 윤월심 이영자 전상길 정순갑 정환근 한정희
북부총괄 교정교회팀	김락중 김병도 김영균 김영란 김행용 류화순 문유경 박숙아 서순자 서승례 손복순 손화자 송영기 안수길 유종성 이강순 이옥희 이재언 이창식 정두애 정찬구 최정숙
서부총괄 교정·염불포교팀	강막례 고향희 권말려 김경석 김수미 김원자 나미경 노경숙 박현 반재연 신동훈 이주상 이홍연 임구빈 주미애 최인숙 최정자
남부총괄 교정교회팀	김홍길 민경숙 박경제 박미례 박창운 박충배 방희자 백금숙 신영세 운영애 운영하 이묘순 이상희 이숙희 최미애
북부총괄 염불포교팀	강재례 고재남 김금례 김민평 김삼석 김성권 김옥순 김정순 김혜숙 김홍범 나채순 노명숙 류정호 문선순 박기환 박창연 선정임 오연성 오향애 윤경숙 윤영식 이동호 이혜숙 장홍수 전현수 정희원 조기남 조왕훈 조현옥 채성숙
동부총괄 염불포교팀	강신경 강은구 권대용 기경석 김성출 김숙자 김중원 문성환 문지영 박재열 박정숙 박중무 양효덕 우정연 이영미 이창영 황인숙
북부총괄 자원봉사팀	강명숙 구형식 김경영 김경하 김순안례 김양희 김영철 김향희 나현철 남영진 박기환 서명숙 신동수 신오형 오자근 윤진영 이경임 이종택 정경미 정동욱 주금성 최현기 한승영
동부총괄 무소유실천팀	고해중 김미연 김영철 김용환 김장렬 김한석 심우성 오영숙 위성철 이병표 이순임 장승기 장재영 황정숙
남부총괄 무소유실천팀	강성덕 김규문 김미 김미영 박정순 박호연 송기진 유경의 유준모 윤준근 이병관 이소향 이순옥 임선옥 임창주 장경덕 전순호 정원길 정인심 최경수
북부총괄 무소유실천팀	구정은 김구옥 김규섭 김미영 김미현 김민화 노영현 박순희 박호열 이용일 정지영 한귀님
남부총괄 자원봉사팀	김경숙 김남용 김송희 김용안 문성미 박근영 박숙현 박준오 백종남 윤문희 이병길 이승배 이화정 정은하 최성자
남부총괄 다문화팀	강민정 고미덕 김복실 김성경 김정수 박향순 오복영 이정숙 임정식 정부영 정유다 조규현 최경희 최동현 최복용 최삼순 한민자
동부총괄 사찰문화해설팀	강국일 김광수 김권옥 김연호 김영은 김채신 김향자 박선영 박진성 박찬중 백지선 손순재 심호섭 양경행 오선애 유의경 윤호식 이미희 이숙재 이승주 임영광 정민희 조미야 조영숙 최선리 한영희
남부총괄 사찰문화해설팀	강문희 김부례 김선숙 김선자 김수연 김연향 김주영 문갑자 박혜경 안순희 안정심 양덕순 오애숙 오양례 이상규 이영현 이해련 임오근 전미란 정인경 정찬수 정찬현 조영현 조원 최대호 최상열 최희복 추현자 하갑동
북부총괄 사찰문화해설팀	김나연 김병희 김서미 박태백 배석하 백승현 서원후 서일범 이경자 이서현 이성수 이한복 전중영 채미선 최혜경 한용옥
북부총괄 문화예술팀	강수현 김민주 김성일 김영자 문맹엽 안경옥 이난주 이소영 이현하 장시명 조혜영 한경자 홍경옥
북부총괄 음성포교팀	김문희 김미옥 김진희 문기연 박주석 배영 신영임 이삼순 이용우 이창욱 임영도 조태길

▶ 운영위원 명부

NO	직 책	성 명	법 명	비 고
1	단 장	윤 중 근	자 안	중앙위원
2	수석부단장	장 송 기	도 정	중앙위원
3	부단장 겸 교육위원	강 윤 구	영 산	중앙위원
4	부 단 장	문 용 주	해 온	중앙위원
5	부 단 장	김 남 용	보 현	
6	감 사	이 재 언	무 착	
7	감 사	오 연 성	덕 광	
8	동부지역총괄팀장	박 중 무	진 성	
9	서부지역총괄팀장	임 구 빈	도 장	
10	남부지역총괄팀장	최 동 현	용 화	
11	북부지역총괄팀장	박 기 환	청 안	
12	동부지역총괄 무소유실천팀장	김 한 석	보 공	
13	동부지역총괄 사찰문화해설팀장	윤 호 식	진 월	
14	동부지역총괄 염불포교팀장	박 정 숙	일륜행	
15	서부지역총괄 교정·염불포교팀장	김 수 미	보리심	
16	서부지역총괄 군포교팀장	김 병 식	심 원	
17	남부지역총괄 교정교화팀장	박 창 운	경 담	
18	남부지역총괄 다문화팀장	오 복 영	월 광	
19	남부지역총괄 무소유실천팀장	이 병 관	자 온	
20	남부지역총괄 자원봉사팀장	이 병 길	법 등	
21	남부지역총괄 사찰문화해설팀장	이 상 규	태 능	
22	북부지역총괄 교정교화팀장	안 수 길	덕 진	
23	북부지역총괄 군1팀장	송 상 근	금 선	
24	북부지역총괄 군2팀장	이 성 환	도 심	
25	북부지역총괄 군3팀장	정 순 갑	보 조	
26	북부지역총괄 무소유실천팀장	한 귀 님	명진보	
27	북부지역총괄 문화예술팀장	김 성 일	성 관	
28	북부지역총괄 사찰문화해설팀장	박 태 백	보 각	
29	북부지역총괄 어린이팀장	김 기 정	청 봉	
30	북부지역총괄 염불포교팀장	조 기 남	덕 원	
31	북부지역총괄 음성포교팀장	김 미 옥	연화덕	
32	북부지역총괄 자원봉사팀장	김 경 하	환희심	
33	북부지역총괄 사찰문화해설팀	한 용 옥	현 담	
	상 별 위 원	이 승 재	덕 산	중앙위원
	선거관리위원	권 말 려	정각심	중앙위원
	홍 보 위 원	박 속 아	자 명	중앙위원

3. 분야별 포교활동 사례

1 | 어린이분야 - 복부총괄 어린이팀

발표자 : 포교사 손덕임

1. 어린이 법회

미래 불교를 이끌어갈 어린이 불자들의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지혜(智慧)를 계발(啓發)시키고 복덕을 구축 시킬 수 있는 신심(信心)과 바른 가치관을 심어 나와 세계의 중심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어린이 법회를 운영합니다.

2. 어린이 법회가 중요한 이유

- 1) 앞으로 10년 후 멀게는 20년 후, 절에 찾아올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 2)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 주변에 어떤 사람들로 부터 어떤 영향을 받는가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일요일에 늦잠의 유혹을 이기고 기꺼이 절을 찾는 친구들에게 어린이 법회에 대한 추억이 소중한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 3)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놀 시간도, 놀 거리도, 놀 문화도 없는' 이 시대의 어린이들이 마음이라도 쉬고 위로받고 갈 곳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어린이들은 자라나는 연꽃이며 꿈꾸는 연꽃입니다. 어린이들은 우리 불교의 미래이고 희망입니다. 한창 자라나는 소중한 어린 불자들을 지지하고 격려하고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주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아이들의 밝은 웃음을 위해,
아이들의 빛나는 인생을 위해,
그러한 아이들로 인해 빛날 나의 마음과 세상을 위해,
우리 어린이 법회는 오늘도 정진해야 합니다.

3. 어린이 포교에 대한 우리의 자세

1) 내 아이처럼 사랑하는 마음과 인격체로 존중하는 마음
어린이를 지도하는 포교사는 가장 먼저 아이들을 내 아이처럼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2) 강인한 인내심과 아이들 눈높이에 맞추는 자세

금방 옷다가 울어버리는 변화가 심하고 예민한 아이들에 대한 강인한 인내심과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현재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좋아하는 게임이 무엇인지, 좋아하는 유행가, 언어 습관 등 아이들의 정서 등을 파악하여 미래의 불교를 이끌어 갈 동량을 길러낸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유심히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어린이 법회 운영

1) 법회 공지

아이들에게 법회 며칠 전 휴대전화 문자발송,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해 법회 안내 및 내용을 미리 공지합니다.

2) 법회 준비 철저

- ① 포교사로서 필수적 요건 사항이지만 법회 집전능력인 목탁 습의를 제대로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 ② 어린이 법회를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어린이 법회 식순인 삼귀의례, 예불문, 한글 반야심경, 어린이 오계, 어린이 발원문, 찬불동요, 산회가, 어린이 공양 게송 등 어린이 법회에 필요한 식순 및 내용을 암기해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 ③ 법회에 필요한 물품인 어린이 법요집, 출석부, 이름표, 목탁, 죽비, 문구류, 상품, 노트, 필기구류, 노트북, 빔프로젝터 등을 준비합니다.
- ④ 설법자는 아이들에게 법회시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 것인지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 ⑤ 법회 후 2부 특별활동은 어떤 것을 할 것인지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3) 설법자의 자세

〈잡아함경〉 및 〈상응부경전〉에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의 이익과 행복과 안락을 위해 길을 떠나라,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으며 조리와 표현을 갖춘 법을 설하라’라 하신 말씀은

어두운 무명에서 갇힌 중생들을 진리의 세계로 인도하라는 전도, 포교, 전법의 중요성을 역설한 것이며, 어린이 법회 포교사뿐만 아니라 모든 법회의 설법자가 지녀야 올바른 자세를 강조하신 것입니다.

4) 법회 설법 내용

어린이 법회 설법내용은 부처님 말씀을 통해 성장기 어린이들에게 올바른 예절과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인성교육,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내용으로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법회 설법 방법

어린이 법회는 딱딱한 교리를 가지고 중점적으로 설명하듯 하는 설법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리 부분만 가지고 설법을 하면 아이들이 쉽게 지루해하고 금방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어린이 법회는 주로 불교 경전 내용, 불교 설화, 불교 전설, 학교 가정 현실 생활 등을 설법주제와 접목해 자연스럽게 부처님 법인 불교 교리가 은연중에 스며들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6) 다양한 법회 진행

- ① 수계법회 : 포교사찰 스님을 모시고 새로 온 아이들을 위해 수시로 오게 및 법명을 수지하게 하는 진정한 부처님의 제자가 되는 출발점인 수계법회를 합니다.
- ② 포살 법회 : 아이들이 한달 동안 일어난 자기 생각과 일들에 대한 참회와 반성의 시간 및 앞으로 각오를 다지는 발원을 하는 포살 법회를 합니다.
- ③ 생일자들을 위한 생일법회, 송년법회 및 입학법회 졸업법회 개학법회 등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 부처님오신날 출가재일 성도재일 열반재일 우란분절 등 불교 5대명절을 기해 기념 법회를 가지는 것도 좋습니다.

5. 어린이 법회 후 창의적 체험 활동을 위한 2부 특별활동

2009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새로운 교육과정의 형태로 어린이들에게 '창의적 체험 활동'을 신설하였습니다. 창의적 체험 활동이란 교과 지식 전달 위주에서 벗어나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해 창의력 고취와 나눔과 배려 등 참다운 인성을 기르는 것을 말합니다.

사찰에서 어린이 법회 후 행해온 모든 2부 특별활동들은 창의적 체험 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린이 법회는 법회만 지속한다면 금방 지루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2부 특별활동 및 야외활동을 통해 재미있는 법회로 아이들의 감성을 끌어내는 창의적 체험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1) 법회 후 2부 활동 프로그램

법회 후 2부 프로그램으로는 생일자 생일축하, 찬불가나 유행가를 통한 율동 및 찬불가 배우기, 다양한 공동체 놀이인 게임, 아이들이 민감한 유행댄스 배우기, 감성과 지성을 끌어내는 연극반 운영, 음성공양을 위한 합창단 운영, 요가 및 선체조 배우기, 108참회 절을 통한 하심과 인내심 배우기, 사찰문화 중 하나인 다도 체험, 아이클레·풍선·종이 등을 이용한 손으로 만들어보는 만들기 프로그램, 한국전통악기인 장구·북·장·꽹과리를 통한 사물놀이 배우기, 서양악기인 드럼 섹스폰 북 키보드 기타 등으로 구성되는 밴드부, 경전 읽기, 부처님 모습 따라 그리는 사불 등 불화 그리기, 불교 경전 베끼어 쓰는 사경하기, 영화감상 등 아이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다양한 2부 프로그램을 통해 창의적 체험 활동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야외법회 및 야외체험활동 프로그램

야외법회형식 야외 체험 활동으로는 전통사찰순례, 여름 및 겨울방학 템플스테이 불교 학교 체험 및 연합캠프 참가, 고아원 및 양로원 등 봉사활동, 인근 사찰의 어린이 합동 법회 참가, 역사유적지 탐방, 민속·화폐·농업·만화·도자기·경찰·자연사 박물관 등 특수체험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박물관 탐방, 운동을 통한 단합심 및 체력단련을 기르는 체육활동, 산·강·바다 등 여행을 통한 자연생태체험, 해외 성지순례, 봄·가을 등산, 여름 해수욕장 및 겨울 스케이트장 눈썰매장 체험, 별을 관찰하는 천문대 체험,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주관 전국어린이 찬불율동제 및 연꽃노래잔치 참가, 전국 규모 백일장 및 교리경시대회(범종을 올려라) 참가, 연등축제(제등행렬) 참가, 불교스카우트 활동 등 다양한 경험을 통해 창의성과 단합심 및 인내심을 길러 줄 수 있습니다.

6. 어린이 포교사의 전문성 제고 방안

1) 불교 어린이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

어린이 법회 운영 경력이 있으신 포교사님들께서는 매년 봄 실시되는 불교 어린이 청소년지도사 공부를 하여 전문성을 갖춘 자격증을 취득합니다.

2) 어린이 청소년 지도자 교육 프로그램 참여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동련 및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파라미타청소년연합

회 등 각 단체에서 매년 한 두 차례씩 실시하는 지도자 강습 프로그램과 권역별 지도자 교육이 있으므로 참가하여 자기계발을 하고, 교육교재와 자료 등 활용법을 배워서 전문성을 높입니다.

7. 어린이 법회 활용 참고 교재

1) 어린이 법회 활용 교재

- 어린이 법회 지침서 -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 어린이 불교학교 지침서 -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 어린이들에게 부처님 말씀 어떻게 전할까? -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 어린이 법요집 -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 야호! 법회 가는 날이다(저학년) -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 우리들의 부처님(고학년) -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 찬불가 및 법회 의식 지도 플래시 CD -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강습회 교재
- 불교레크리에이션 자료집 -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연수회 교재
- 어린이·청소년들을 위한 사찰 체험 프로그램 자료집 - (사) 동련
- 종합콘텐츠자료집 - (사) 동련
- 어린이 찬불동요 피아노 반주곡집 - 좋은 벗 풍경소리
- 어린이 찬불동요
- 부처님 오신 날 연등축제의 노래

2) 어린이 법회 참고 사이트(홈페이지, 카페)

- ① 사단법인 동련 (어린이포교자료) - <http://www.dongryun.net/>
- ②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레크 자료 및 게임) - <http://cafe.daum.net/burec>
- ③ 키즈붓다 지도자 세상 - <http://kidsbuddha.org/>
- ④ 사단법인 파라미타 청소년연합회 - <http://www.paramita.or.kr/>
- ⑤ 연등축제 (동자승 이미지컷, 연등축제 올동, 등 만들기) - www.llf.or.kr
- ⑥ 불교어린이청소년지도사 카페 - <http://cafe.daum.net/buddhismleader>.

2 | 군 포교분야 - 북부총괄 군2팀

발표자 : 포교사 강진옥

팀장 : 이성환(19기)

총원 : 15명

활동장소 : 31사단 호국관음사(광주광역시 북구 일곡동)

활동내용 : 월 4회(매주 일요일) 법회 진행 및 사찰예절지도, 간식제공

일요법회 참석인원 : 포교사 2~3명, 불자장병 50명~200명, 일반불자 20여명

1. 노트북 및 CD를 활용하여 총 6주를 기준으로 주차별로 초심자에게 필요한 예절, 기초교리 등을 법회 참석한 불자 장병들에게 교육.
2. 매주 오전 10시부터 약 40분간 교육을 진행하며, 90%이상이 초심자이므로 법회 식순에 의해 여법하게 법회를 봉행할 수 있도록 동참 포교사가 시범을 실시하며 교육 함.
3. 팀 목표 관련 기타 활동 내용
 - 주차별로 주지 법사님과 상의하여 햄버거, 토스트 초코파이, 음료 등의 간식을 제공하며, 우수자에게 특별간식 및 전화포상 실시.
 - 군중교구에서 배포한 예절교육 CD확보하여 동영상 교육실시.
4. 활동소감 및 향후계획
 - 불자의 고령화와 차츰 줄어드는 신도수의 유일한 대안은 젊은 입대 장병들을 교육하여 당장의 효과는 경미하지만 약 20년 후 군 장병들이 40세 이상이 되었을 때 그 효과는 클 것이라 기대하며, 신병 뿐 만 아니라 기간 장병들까지 법회에 참석 할 수 있도록 포교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3 | 군 포교분야 - 화순유격교육대

발표자 : 포교사 이창식

화순군 동북면 안성리 용성산 자락에 있는 화순 유격교육대는 육군보병학교 소속으로 연간 4,000여명이 유격훈련을 받고 있으며 지금까지 20여만 명의 장병이 거쳐 간 대한민국 육군 장교들의 유격교육의 요람입니다. 지금도 유격대 교육장에서는 ‘전장을 지배하라’는 구호 아래 빨간 모자의 멋진 유격 부대원들이 불철주야 열심히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 하반기에 장성 상무대 군법사 스님으로부터 몇몇의 불자장병들이 불교 TV 방송을 통해 매주 자율적으로 법회를 하고 있으니 포교사단에서 법회 진행을 도와주면 좋겠다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에 이미 팀 구성이 끝난 시점이라 새로운 팀을 만들 여력이 없어서 우선 뜻있는 포교사의 자발적인 참여로 첫째 셋째 일요일(월 2회) 군 법회를 열기로 의견을 모아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법회를 봉행하고자 처음 간 유격교육대는 아미타경의 극락세계에서나 볼 수 있을 것 같은 적벽의 수려함을 끼고 산자락을 돌고 돌아 한참을 가야했습니다. 철옹성이 있다면 이렇게 생겼을까하는 다부진 바위산인 용성산 자락 아래에 유격교육대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부대 입구에 다다랐을 때 “아! …”하고 외마디의 탄성이 나왔습니다. 입구에 진중교회가 세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불교 법당은? 예상대로 부대 내 법당은 없었고 장병들이 부대 내 북카페에서 임시로 법회를 열고 있었습니다. 이후 지금까지 우리 지역단 포교사들이 참여하여 북카페에서 매월 두 차례 빠짐없이 법회를 봉행하고 있는 바, 원을 세우고 최선을 다하면 언젠가는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법당이 세워질 것으로 기대하여 봅니다.

1. 활동목적

- (1) 포교사로서 포교원의 ‘붓다로 살자’ 신행혁신 운동의 전법활동에 적극 동참한다.
- (2) ‘불자 감소’의 가장 취약 계층이면서 황금어장인 청년 불자이자 군 장병에게 불법을 전한다.
- (3) 군 생활 중 불법을 접함으로써 연어가 회귀하듯이 제대 후 불교에 귀의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다.
- (4) 명상 및 호흡법을 전수하여 스스로를 돌아보며, 마음을 가다듬고 안정된

군 생활을 하는데 도움을 제공한다.

- (5) 수계법회를 통해 계율의 중요성과 참 불자로 거듭나는 기회를 주고자 한다.
- (6) 우리 포교사는 집전과 강의(법문) 능력을 기른다.
- (7) 또한, 포교사로서 자긍심을 고양시키며 도반 상호간 친목을 도모한다.

2. 활동방침

- (1) 팀 구성 시까지 포교사단 직할 팀으로 임시 운영한다.
- (2)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활동한다
 - 첫째 주 그룹 : 장승기 수석부단장, 김남용 부단장, 이재언 감사, 안규춘 포교사, 이창식 포교사, 이동호 사무국장 및 지원자
 - 셋째 주 그룹 : 윤중근 단장, 강운구 부단장, 박기환 북부총괄팀장, 조현옥 포교사 및 지원자
- (3) 법회는 월2회, 매월 첫째 주와 셋째 주 일요일 오후 2시 반부터 4시 반 까지 봉행한다.
- (4) 법회의 집전 및 강의(법문)는 상호 협의하여 순번제로 시행한다.
- (5) 간식비용은 보조금 및 참여자의 보시금으로 운영한다.

3. 활동내용

- (1) 2017년 2월부터 매월 첫째 주와 셋째 주에 참여 구성원 상호간 순번을 조율하여 빠짐없이 법회 봉행
- (2) 2017년 12월 9일 광주전남지역단 포교사 전진대회 행사에 상무대 군 법사 성원스님 및 유격교육대 불자 장병 8명을 초대하여 불법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키고 불교의 위상을 고양
- (3) 2018년 4월 29일 인드라마 '붓다로 살자' 실천도량 선덕사의 협조로 화순 유격대 장병 9명, 장성 전차대대 장병 7명에게 주지 원묵 스님을 전계사로 수계법회를 시행
- (4) 수계 장병들에게 포교사단에서 '불교입문' 서적과 합장주 선물
- (5) 군 장병 수계식을 추진하여 주위 불자들에게 포교사단의 위상을 고양

4. 향후 추진 방향

- (1) 독립된 팀을 구성하여 원활하고 체계적으로 법회 운영
- (2)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한 프로그램의 다양화
- (3) 일관된 법회 운영으로 전법의 효율화

- (4) 합리적인 보조금 및 보시금 확보로 프로그램의 다변화 및 제공 간식의 원활한 확보

5. 제언

- (1) 포교사로서 스님들과의 관계 재정립 모색
- (2) 포교사 팀 활동과 재적사찰 소임활동 간의 조화 추구
- (3) 출가자 감소 시대에 대비한 포교사의 의식 집전과 강의(법문) 역량 강화
- (4) '붓다로 살자' 신행혁신운동의 전범자인 포교사로서 이론과 실제 교육 필요
- (5) 팀 활동 활성화 방안으로 팀 복수 가입 권유 및 추진
- (6) 각 불교대학과 재적사찰에 포교사의 역할에 대하여 적극적인 홍보 필요
- (7) 팀 구성의 다양화 및 재구성으로 각 팀에 활력부여
- (8) 조직의 위상 고양 및 상호 소통의 기회 확대 방안 논의

요즈음 화순 유격교육대 내에 유격 훈련에 버금가는 체험장을 조성하여 은퇴 장병은 물론 학생과 일반인이 체험과 관람 등을 통해 관광활성화를 이루고자 화순군청에서 병영체험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영체험장이 조성되면 많은 군장병과 학생 및 일반인들이 유격교육대를 찾게 되어 포교 활동의 블루 오션이 될 수 있는 현장으로써 지대한 관심이 요구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군 장병들의 초롱초롱한 눈동자와 흐트러짐이 없는 자세에서 불교의 희망을 찾을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그 동안 화순 유격교육대 법회와 포교활동을 해오신 선배, 동료 포교사님들의 노고를 찬탄 드리며 함께 할 수 있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불기2562년 지역단 분야별연수에 참여하신 포교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23기 1차합격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화순 유격교육대 포교활동에 대한 발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4 | 복지분야 - 동부총괄 염불포교팀

발표자 : 총괄팀장 박중무

팀장 : 박정숙(21기)

탄생 2017년 1월

염불포교팀 구성원 17명

염불포교팀 실 활동인원 약 6명

부처님의 위없이 높은 깨달음은 보살행으로 완성됩니다.

보살행은 상구보리 하화중생 자리아타행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살행은 원을 세우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 불교에 무지한 사람을 구제하고 불도를 성취하게 하는 서원이 중요합니다.

보살도는 보리심을 일으켜 이타의 서원이라는 갑옷으로 무장해야 하고 하회중생의 6바라밀을 닦음으로써 궁극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모든 보살 마하살이 궁극의 깨달음을 얻고자 한다면, 마땅히 6바라밀을 닦아야 합니다.

이러한 육바라밀은 보살마하살의 어머니로서 보살을 낳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보살행은 자비와 봉사의 실천으로 완성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삶의 현장에는 어린이, 노인, 병약자를 돕는 일, 못 먹고 헐벗은 이를 돕는 일, 환자, 독거노인을 돕는 일, 고아·청소년 가장을 돕는 일, 많지만 큰 서원을 세워 국가 유공자님들이 영면하고 계시는 임실 국립호국원에서 독립유공자님, 6.25참전유공자님, 무명용사님, 각 지구 전투에서 전사하신 유공자님들, 월남참전유공자님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호국영령위령제를 모실 수 있음으로 아미타부처님의 영접으로 극락왕생 하는 것을 보는듯한 만족감에 환희심을 느낍니다.

동부 염불포교팀은 영가를 극락왕생할 수 있도록 이끄는 일 즉, 우리는 특히 시다림 봉사가 가장 필요한 보살행이라 믿기에 영가에 대한 엄숙한 의식을 행하여, 영가를 서방정토로 인도했다는 안도감과 유가족의 마음이 편안해 지는 것을 느낍니다. 또 팀원 각자의 마음이 한없이 평화롭고 뿌듯한 보살행의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영가에 대한 시다림 봉사는 우리의 보살행 실천에서 첫 번째 덕목이라 감히 생각합니다.

태어나면 누구나 죽습니다. 우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삶과 죽음이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영가(靈駕)를 위한 시다림은 항상 사전 예고 없이 요청이 들어옵니다. 임중, 성복제, 발인작법, 영결식, 매장, 49재 의식 등이 있을 때마다 영가들을 위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주고 있습니다만 우리 염불포교팀은 그중 시다림과 임중염불, 기타를 행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 동부 염불포교팀이 원만히 활동하려면 염불봉사, 연습봉사, 성복제, 평토제등 제례봉사를 할 수 있다면 더욱 빛날 것이라 생각 합니다.

염불은 상을 당하신 본인 친인척 또한 우리 염불포교팀의 권유, 장례식장의 요청 기타(개인의 요청)로 엄숙하고 정성을 다한 순수 봉사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바쁜 시간을 분할 할애하여 전단지를 만들어 장례식장 및 지인들의 단체에 배부하기도 합니다.

동부권 (순천,여수,광양,고흥,구례,등) 및 가족이 요청한 타 지역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바쁜 일상 중에 시간을 내어 시다림 봉사를 가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직장인과 전업주부로서 오후 시간에 시다림 봉사 요청을 받으면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염불·연습봉사는 언제 돌아가실지 예측하기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항상 우리들의 옆에는 복장과 의식문, 목탁이 들어 있어야겠습니다.

우리가 속한 동부총괄 염불포교팀의 활동지역이 아니라도 이웃 팀에서 봉사인원이 부족하면 도와주기도 합니다.

정성을 다해 시다림 염불봉사를 마친 후 유족들의 고마움의 인사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환희심을 느끼게 할 것입니다. 어떤 때는 감사의 표시로 돈 봉투를 슬며시 내밀지만 단원 모두가 ‘봉사는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라는 약속을 부처님과 했기 때문에 정중히 거절해야 합니다

우리 동부 염불포교팀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에 약속의 실천이 따르지 않으면 공염불에 불과할 것입니다. 원을 세워 행한다면 그 모두 공덕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발심이 내 육신과 마음과 정신에 서지 않으면 허물어지기 쉽습니다. 염불봉사의 대가는 다름이 아니라. 내게 남은 겨자씨 만 한 공덕이 있다면 그 공덕마저도 고인이 서방정토에 가는 길에 보태 드려야 합니다. 의식을 독송하면 마음에 안정을 찾고, 고인을 편히 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동부총괄 염불포교팀은 늦게 출발했지만 큰 염원과 굳은 신념으로 영가들의 왕생극락을 기원하고 유족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영가를 보낼 수 있다면 이아니 적은 공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불기 256년 6월 2일

동부총괄 염불포교팀 일동

5 불교문화해설분야 - 북부총괄 사찰문화해설팀

발표자 : 팀장 박태백

팀장 : 박태백(21기)

총원 : 16명

활동장소 : 제18교구본사 백양사 및 지역 내 사찰

활동내용 : 사찰문화해설 수시 참여

제18교구본사인 백양사에서 2018년 4월 28일에 북부사찰 문화해설팀 전원이 참석하여 각 분야별로 분담하여 불교문화해설을 하였습니다.

불교의 상징물이나 전각은 많으나 그 중에서 사찰 일주문을 통과하여 첫 번째 관문인 사천왕문에 대한 해설을 한 사례를 발표하겠습니다.

육계 6천의 첫 관문인 사천왕천을 상징하고 있는 사천왕문에 대한 불교적 상징적 의미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사천왕문에서는 수미산의 중간 단계의 하늘로서 중생계의 삶에 대한 관찰하는 사천왕천에 대한 지국천왕, 증장천왕, 광목천왕, 다문천왕의 역할 등을 설명하였으며, 그 내용들을 세분하여 설명하겠습니다.

동방의 지국천왕은 만민의 수호신으로 수미산 동쪽중턱의 황금타에 있는 천궁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지국천왕은 착한 이에게는 복을 내리고 악한 이에게는 벌을 내려 언제나 중생

을 골고루 보살피고 국토를 수호하겠다는 서원을 세웠다 한다.

얼굴은 푸른색을 띠고 오른손에는 칼을 쥐고 왼손에는 주먹을 쥐고 허리에 대고 있거나 보석을 손바닥위에 올려 놓고 있는 형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의 휘하에는 술과 고기를 먹지 않고 향기만 맡는 건달바와 부단나를 거느리고 있다고 합니다.

남쪽을 지키는 증장천왕은 수미산중턱의 유리타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천왕은 자신의 위덕을 증장시켜 만물을 소생시키는 덕을 베풀겠다는 서원을 세웠다고 합니다.

휘하에는 구반다와 페레다를 거느리고 몸은 붉은색이며 얼굴은 노기를 띠고 있다고 합니다.

증장천왕은 오른손에 용을 쥐고 왼손은 위로 들어 엄지와 중지로 용의 입에서 빼낸 여의주를 살짝 쥐고 있는 형상을 취하고 있다.

서쪽을 지키는 광목천왕은 수미산 중턱의 백은타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천왕은 몸이 백색으로 장식되어있고 용변을 통하여 온갖 나쁜 이야기를 물리친다는 것을 상징하기 위하여 다른 천왕과는 달리 입을 벌린 형상을 취하고 있다.

눈을 부릅뜸으로써 그 위엄으로 나쁜 것을 몰아낸다하여 광목이라 부르기도 한다.

이 천왕의 서원은 죄인에게 벌을 내려 매우 심한 고통을 느끼게 하는 가운데 도심을 일으키도록 하는 것이다.

그는 붉은 관을 쓰고 갑옷을 입었으며 오른손에는 삼지창을 들고 왼손은 보탑을 들고 있다.

이 보탑 속에는 보물이 많이 간직되어 있는데 이를 중생들에게 나누어주어 복과 덕을 얻게 하였다.

그의 휘하에는 용신과 비사사가 있다.

북쪽을 지키는 다문천왕은 비사문천이라고도 한다. 이는 수미산중턱 북쪽 수정타에 살고 있으며 언제나 부처님도량을 지키면서 부처님의 설법을 듣는다고 하여 다문이라고도 한다.

그의 역할은 암흑계에 사물을 관리하며 불교에 귀의한 후 광명신이 되었다가 다시어둠속에서 방황하는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수미산 중턱 북쪽을 관장하는 천왕이 되었다고 한다.

몸은 흑색이며 왼손으로 비파를 잡고 오른손가락으로 비파줄을 튕기는 모습을 취하고 있다.

흰 이빨을 드러낸 체 미소를 띠면서 비파를 타고 있는 모습은 마치 진리를 다 문함으로써 샘솟게 하는 법열을 모든 중생에게 나누어 주고자하는 의지가 깃들여 있는 듯하다.

이상으로 사천왕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으나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은 사천왕의 피부색과 방위입니다.

방위로 보면 목화토금수인데 가운데 토가 빠진 것입니다.

이것은 중앙을 상징한 것으로 부처님이 계신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토자리에는 황금색을 띤 부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만 천왕문 중앙에 부처님을 모시지 않는 이유는 일주문과 천왕문이 수행의 공간적 상황, 불국정토로 향하는 하나의 단계를 상징하며 그 자리에 건립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들 사천왕을 모신 전각은 일반적으로 정면 3칸 측면2의 맞배지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천왕문에 대해 불교적인 의미를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잘 듣고 이해하였는지요?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많은 해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분야별 포교 활동과 주의사항

봉사현장에 스님이 계시면 예를 철저히 하고, 스님의 복장을 흉내 내서는 안 되며 포교사로서 각 계층의 법회지원을 위해 활동하는 분들은 지도자로서의 기초소양을 갖추고 활동분야의 자격증을 준비합니다.

가. 군포교분야

- (1) 매주 1회 법회를 지원하고, 대부분 초심자인 군 장병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지도해야 한다.
- (2) 팀장과 함께 지원 군법당을 관할하는 군승법사를 면담하고 활동과 관련된 협조를 구해야 한다.
- (3) 지원하는 군법당에 군중병(후임사병)을 꼭 지정하고 법당 내 외부 시설물을 수시점검 확인한다.
- (4) 팀원 간에 월례회를 통해 법회내용을 교육하고 팀원 단합과 친목을 도모하며, 법회 시 정치적인 발언을 삼간다.
- (5) 군 법당 지원 및 간식비 등은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무리하지 말고 균형 있게 지원한다.
- (6) 군 장병 수계법회를 분기별로 실시하고, 독경대회, 음악교실, 교리 골든벨을 개최하여 법회를 다양하게 운영한다.
- (7) 지도자로서의 품위를 갖추고 군 장병들에게 부대의 각종훈련, 행사, 명절 등으로 군법당의 변경된 일정을 확인한다.
- (8) 법회의식은 국군법요집에 따라서 최대 간소화 한다.

나. 교정교화 포교분야

- (1) 교정교화 팀으로 구성되고, 매주 1회 교도소 및 소년원 등에서 법회를 지원하며, 팀원 간에 법회내용과 관련하여 항상 협의하고 팀 월례회의를 정기적으로 갖는다.
- (2) 재소자의 정서문화 함양을 위하여 지속적인 상담과 불교교리 강좌를 통해 사회적응을 유도한다.
- (3) 각 지역 교정위원 및 교도관과 교양프로그램을 협의하고, 재소자와 가족의 면회를 주선해선 안 되며 본인의 전화번호나 주소는 남기지 않는다.
- (4) 심리상담이나 멘토의 역할이 가능한 전문과정의 교육을 통해 교정교화 포교분야 인재를 발굴 해 나간다.

다. 계층포교 분야

- (1) 어린이, 청소년, 대학, 공무원 포교팀으로 구성한다.
- (2) 학원이나 교육기관처럼 지식이나 삶의 기술적인 면보다 전인적인 교육에 초점을 맞춘다.
- (3) 각 계층의 범회지원이나 수련대회(어린이, 청소년지도자)에 참가를 지원하고 지도자로서 기초 소양을 갖춘다.
- (4) 놀이와 스포츠, 예술분야의 원리를 최대한 활용하여 다양한 신행활동의 보급을 연구한다.
- (5) 사찰, 포교원 등에 어린이 보호시설 이용여부를 검토하고 지역아동지원(템플스테이, 숲 해설, 방과 후 교육, 영어 등)을 한다.

라. 문화예술분야

문화예술팀, 음성포교팀, 사찰문화해설팀, 홍보.

- (1) 문화예술팀 및 음성포교팀은 포교사단 행사를 지원하고 월 1회 월례회의와 주1회 연습을 통하여 화합하며 복지회관 위문공연, 지역직장법회 등 외부단체 행사를 지원 할 경우 사례비를 받아서는 안되며, 포교사단에 결재를 득 한다.
- (2) 사찰문화해설팀원은 여러 곳의 전통사찰과 박물관을 선정하여 조별로 사찰문화해설, 템플스테이 지원, 새 신자들에게 사찰예절 지도 활동을 한다. 그리고 원활한 사찰 봉사활동을 위해 별도로 사찰 내에 사조직을 구성하지 않으며, 사중에서 필요로 하는 업무를 역할 분담하여 재적사찰 활동에 소홀함이 없도록 한다
- (3) 홍보활동은 포교사 활동을 대내외에 알리는 보도자료 작성, 홍보자료기획, 행사기획과 현장답사, 인터넷포교(뉴스레터 발송), 홈페이지 관리, 간행물 제작 .배포, 촬영 및 편집(미디어포교), 종교편향 활동 등 역할을 분담하고 취재기자와 홍보위원은 유경험자로 한다.

마. 사회복지 분야

- (1) 자원봉사팀, 염불포교팀, 다문화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 (2) 지역사회와 사찰의 복지활동에 참여하며 공과 사를 분명히 해야 한다.
- (3) 염불포교는 영가가족위로 및 교화와 염불봉사에 목적을 두고 활동한다.
- (4) 염불포교 소속원은 상주의 허락을 받고 활동하며 사례비를 받아서는 안된다.
- (5) 주1회 이상 기본의식 습의에 동참한다.
- (6) 소정의 교육을 통하여 상담심리사, 사회복지사 등 자격을 갖춘다.

〈부록〉 신행혁신운동 “뵈다로 살자”

1. 신행혁신의 필요성과 방향

1. 신행혁신의 필요성 - 한국불교 위기

2015년 통계청의 인구조사 결과 300만의 불자가 감소하고, 불교가 제2의 종교로 전락하였다. 사찰을 보면 신행활동의 중심은 고령화 된 여성 신도이고, 어린이와 청소년, 청년은 찾아보기 어렵다. 정치, 경제, 사회 분야의 지도자들 가운데 불자는 매우 소수에 불과하며, 불자라는 것을 당당히 드러내는 사람은 거의 없다. 한국불교는 위기에 처한 것이다.

위기를 인정한다는 것의 의미

부처님은 자신이 직면한 현실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열반을 실현하는 첫 번째 거룩한 진리(고성제)라고 하셨다. 이제 한국불교가 위기 상황임을 냉철히 인정하고, 거기서부터 우리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 위기를 인정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해 온 불교의 형식과 내용이 한계에 봉착했음을 인정하는 것이며, 일상적인 활동 체계와 내용의 틀을 뛰어넘는 새로운 비전과 활동을 설정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어떤 위기인가

출가자가 줄어들고, 재가불자가 줄어들고, 불교의 사회적 문화적 영향력이 줄어들었다. 총체적으로 표현하자면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이 있는 곳에 불교가 보이지 않는다. 이 위기는 단순히 ‘사찰이 포교를 잘 못해서 문제가 생겼으니 이제부터 포교를 잘 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차원이 아니다. 그동안 우리 불교계는 전국 방방곡곡에서 열심히 도량을 건립하고 기도하면서 포교를 잘 하려고 갖은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이런 위기에 봉착했기 때문이다.

세상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사회적 괴로움이 발생하는 양상이 급격히 달라지고 있다. 세상은 저만큼 달려가는데 우리는 전통적인 체계와 방식을 유지하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 급변하는 시대는 한국불교에게 함께 갈 것인지, 아니면 과거의 역사로 남을 것인지 선택하라고 말한다. 지금 한국불교가 직면한 위기는 ‘이 시대에 어떤 불교를 누가 주체가 되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근원적인 정체성에 관한 절체절명의 질문인 것이다.

2. 신행혁신의 방향 - ‘뵈다로 살자’

불교의 역사는 부처님을 그 시대에 따라 새롭게 해석하고 발견한 역사라고 할 수 있다. 위대한 스승이자 선배들은 법고창신(法古創新)의 정신으로 아비달마, 반야 중관, 유식, 여래장, 화엄, 법화, 정토, 밀교, 선종 등 다양한 형태의 불교를 역사적 현장에서 펼쳐왔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온고지신(溫故知新)의 안목으로 현대사회의 마당에서 어떤 불교를 펼칠 것인가?

왜 ‘붓다로 살자’인가?

그동안 중단은 초기불교와 대승불교, 교학불교와 선불교, 현대불교와 미래불교의 길, 일상의 삶과 불교수행, 깨달음과 현실의 삶, 개인의 수행과 사회적 실천 등 다양한 물음 앞에서 시대를 관통하는 불교관과 실천론을 정립하고자 많은 논의를 진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붓다의 참뜻이 온전히 담긴 불교를 “있는 그대로 본(중도) 본래붓다와 큰 자비(사랑)의 삶”이라고 정의하였고, 이 길만이 현대불교와 미래불교가 나아갈 희망의 길이라고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불교관을 바탕으로 할 때 간화선, 염불, 진언, 위빠사나, 명상 등 다양한 수행들이 비로소 깨달음을 실천하는 올바른 수행이 된다고 보았다. 그 뒤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앞으로 추구해야 할 한국불교의 지향을 역동적·인격적 개념인 ‘붓다로 살자’로 정하기로 마음을 모았다.

초기경전에서 붓다의 삶은 ‘연기무아와 해탈열반 - 인연의 어울림으로 이루어져 분리 독립, 고정불변의 그 무엇도 있지 않음을 잘 이해하여 언제나 자유롭고 평화롭게 살아간 삶’으로 정리된다. 대승경전에선 ‘연기·공과 동체대비 - 인연의 어울림으로 이루어져 분리 독립, 고정 불변하는 그 무엇도 있지 않음을 잘 이해하며 서로 함께 평화롭고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하는 큰 자비(사랑)의 삶’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선불교에서는 “그대 마음이 본래 붓다”라 했고, “본래 붓다임을 홀연히 깨달으면, 한없이 본질적으로 자유로워 여실히 안락할 것이다. 또한 온갖 묘한 작용은 외부로부터 오지 않나니, 본래부터 스스로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이렇게 초기불교부터 선불교에 이르기까지 붓다로 사는 것은 불교의 목표로 제시되었으며, 이것은 나중에 해야 할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실천함으로써 바로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II. 신행혁신의 조직적 과제

1. 누가 붓다로 살아야 하는가? - 사부대중공동체

‘붓다로 살자’는 모든 존재가 본래 여여한 법성의 존재인 붓다이므로 미래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붓다로 살자는 것이다. 모든 존재가 평등한 본래 붓다이므로 출가자가, 남녀노소의 차이는 존중되어야 할 다양성일 뿐 차별일 수 없다. 오히려 스님붓다, 포교사붓다, 중무원붓다, 시민붓다, 농부붓다 등 다양한 분상에서 참 주인공인 붓다로 살아가는 것이 ‘붓다로 살자’가 지향하는 모습이며, 약 2천 년 전 대승불교를 꽃피운 선배 스님들이 꿈꾸었던 세상이기도 하다.

서로 존중하고 화합하는 사부대중공동체

그런데 현재 한국불교는 사부대중 간 평등과 존중이 제대로 자리 잡고 있지 않다. 불평등은 부처님 가르침에 맞지 않고 현대 사회의 질서와도 맞지 않아서 불교를 위축시키는 요인이 된다. 출가자는 출가자라는 이유로 존중받고, 재가불자는 재가불자라는 이유로 존중받으며, 자기가 잘 할 수 있는 역할에 맞게 서로 배려하고 화합하며 나누고 감사하는 불교 공동체 문화를 가꾸는 것이 ‘붓다로 살자’에 부합하는 모습이다. 이것을 사부대중공동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공동체 운동의 가장 선구자인 석가모니 붓다의 정신에도 맞고 현대사회, 나아가 미래 사회에서도 중요하게 구현되어야 할 평등과 정의, 공동체 가치관과 잘 어울릴 뿐 아니라 한국불교의 체질을 개선하고 사회적 위상과 역할을 크게 제고하게 될 것이다.

사부대중공동체라고 하더라도 그 역할은 구성원에 따라 달리 설정되어야 한다. 출가자는 출가자가 잘 할 수 있는 것을, 재가불자는 재가불자가 잘 할 수 있는 것을 맡아 함께 현실 불교의 근거지인 도량을 일구고 가꾸며, 세간에 부처님의 교화(불사)를 펼쳐야 한다.

이웃종교를 보면 성당이나 교회에 성직자가 많이 배치되어 있다기보다 평신도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수많은 일을 하고 있다. 반면 우리 불교는 부처님께서 처음부터 공동체를 조직하면서 출발했지만 현재 우리의 사찰은 재가불자의 주도적인 역할이 조직되지 못하고 신행의 대상으로 수동적인 역할에 머무르고 있다. 그런데 조계사나 봉은사와 같이 활발한 역할이 두드러지고 사세가 나날이 성장하는 사찰의 안을 들여다보면 다양한 활동 기구를 통해 재가불자들이 매우 조직적으로 사찰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재가불자에게 역할, 곧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여 활동의 주체로 세우는 패러다임의 전환 없이 한국불교의 혁신적인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다.

2. 사찰 - 혁신의 가장 중요한 현장

한국 불교에서 신행의 중심에는 사찰이 있다. 사찰은 우리나라 불교계가 1700년간 만들고 가꾸어 온 역사와 전통의 문화 영역이며, 한국 불교가 국민과 만나는 접점이고, 교육

과 포교의 현장이다. 그러므로 한국불교 위기 극복의 제일 중요한 현장은 사찰이라 할 수 있다.

사찰 변화의 핵심은 스님의 변화

사찰은 출가와 재가가 함께 참여하고 있지만 사찰의 내용과 방향은 출가 소임자, 특히 주지 스님이 리더로서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다. 사찰의 수준은 주지스님의 수준을 넘을 수 없으며, 사찰의 역할은 주지스님의 안목을 넘을 수 없다. 신행혁신의 가장 중요한 실현지가 사찰이라면 신행혁신의 첫 번째 활동 주체는 주지스님과 출가 소임자이다.

3. 스님을 주인공답게 - 전법역량 강화와 승려복지

스님을 전법 전문가로 성장시키는 교육 필요

승가대학 교육 과정은 ‘붓다로 살자’고 서원하는 대승 행자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기간으로, 계정해 삼학을 몸으로 익히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체계적 이해와 인문적 소양을 갖추어 다양한 질문에 불교 논리로 답할 수 있는 소양을 갖추는 것에 중점을 둔다.

승가대학을 졸업한 후 스님들은 출가자로서 빛나는 세 가지 길을 선택하게 된다. 하나는 선원에서 안거하는 등 전문 수행자의 길이며, 또 하나는 경율론 삼장과 인접 학문을 계속 연찬하는 불교 교육자의 길이며, 나머지 하나는 사찰을 비롯한 전법 현장에서 활동하는 길이다. 이 가운데 전문 수행자의 길은 선원을 통해, 교육자의 길은 대학원을 통해 진로를 모색하게 되지만 전법 활동가의 길은 특별하게 역량을 갖추 수 있는 과정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

스님들이 전법활동을 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전문적 소양으로는 조직관리, 설법, 상담, 명상과 수행지도 등이 있다. 이런 전법 역량은 의무교육 과정에서 갖추게 하는 것보다 전법 활동가의 길을 선택한 스님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단기적인 강의보다는 수개월에 걸쳐 이론과 실습, 평가를 통해 역량을 함양하며, 일정 기간 교육을 받으면 종단에서 인증하는 자격증을 부여하여 대외적 신뢰도를 높여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전법연수원 설립을 검토한다.

종단 차원의 다양한 명상법 개발과 보급

세계적으로 명상이 유행하고 있다. 누구나 수행을 통해 자신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시대라는 긍정적 측면과 함께, 무한 경쟁 사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치고 힘들어 명상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불교는 수천 년 역사를 통해 마음 치유에 관하여 가장 전문적인 이론과 실습 체계를 갖

추어 왔다. 그런데 우리 종단은 국내외에 유행하는 다양한 명상법들이 간화선보다는 수준이 낮다는 점을 지적했지만, 지금 시대에 시민들이 이것을 매우 필요로 한다는 것을 놓친 측면이 있다. 그러다보니 단월드, 마음수련원 등이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운영되고, 스님들조차 이런 곳에 명상하러 가는 실정이지만 명상을 통해 위로받고 자신감을 회복하기 위해 절에 오는 경우는 별로 없다.

종단 차원에서 기존의 다양한 명상법들을 수렴하여 연구하고 개발하며 전법연수원을 통해 현장에 보급하면 불교 자산이 전법에 제대로 활용될 수 있고, 명상을 매개로 재가불자를 조직할 수 있는 등 많은 긍정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통계조사에서 보여지듯이 불자들이 사찰에서 얻고자 했지만 얻지 못하고 절을 떠나 다른 곳에서 찾았던 영성개발과 마음 치유를 사찰에서 얻을 수 있게 되면 불자들의 이탈을 막고 불자로의 유입을 강화할 수 있는 장치가 된다는 점에서 한국불교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이라고 할 것이다.

승려복지는 전법의 토대

한편 스님들은 출가부터 입적까지 안정적인 복지가 제공되어야 한다. 스님들이 노후 거처와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고민하는 것은 삼보정재를 사유화하는 것이며, 우리가 만들고 가꾸어야 할 공동체를 오히려 약화시키는 방향이다. 현장에서 열심히 전법 교화하는데 사용할 시간과 노력과 재정을 각자도생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은 교단적으로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의료, 주거, 일상 경비 지원 등을 통해 스님들이 생활에 대한 걱정 없이 자신의 기질과 역량에 맞게 수행, 교육, 전법을 비롯한 다양한 현장의 활동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승가복지이다. 복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사찰과 종단, 출재가가 힘을 모아야 하겠지만, 일단 승가복지는 우리 종단의 기본적인 역할이며 책임이라는 관점이 필요하다.

4. 재가를 주인공답게 - 신도 조직화

재가불자는 재적사찰을 기반으로 신행활동을 하면서 사찰의 유지 운영, 신도 관리, 봉사와 사회적 활동을 담당함으로써 빛나게 된다.

종단은 신도 품계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종래 운영하던 품계는 사찰에서의 역할과 신행 측면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교육 이수만을 기준으로 부여되었기 때문에 품계 제도의 긍정적 측면을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 사찰에서의 역할과 신행 경력, 교육을 반영한 품계를 통해 신도를 조직하고, 높은 품계를 받은 신도는 그 사찰의 지도자 위상을 인정해줌으로써 품계에 성취동기를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포교 성적과 신도 조직화 진행 상황을 주지 인사에 있어서 중요한 평가 지표로 적용하여 사찰 소임자들이 포교에 힘쓸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삼는다.

역할 부여를 통한 재가불자 조직화

신도가 수행과 활동, 교육의 세 측면을 함께 평가하여 품계를 부여받고 조직을 이루면 이들은 한두 명의 스님들이 할 수 없었던 다양한 활동을 펼칠 수 있고, 신도가 이탈하지 않도록 스스로 올라리가 되며, 스님들이 사찰 운영의 실무적 활동에서 벗어나 스님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아직 사찰 운영의 다양한 부분을 믿고 맡길만한 신도 역량이 조직되어 있는 곳은 많지 않다. 그러나 역할이 부여되어야 사람도 준비된다. 역할을 부여하지 않으면 신도는 계속 사찰의 주변인, 손님으로만 남고, 한국불교의 혁신은 요원하게 될 것이다. 출가는 재가를 불신하고 재가는 출가를 불신하는 상황을 조속히 끝내야 한다.

5. 삶의 현장에 함께하는 불교

이웃종교인 기독교는 시민들이 거주하는 골목을 장악했다. 다양한 복지기관, 보육기관, 교육기관,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가 많이 부족한 부분이고, 다소 부러운 부분이기도 하다.

그러나 요즘 시대에 종교가 삶의 현장에 있다는 것은 꼭 시내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어느 집 음식이 맛있다고 하면 30분, 한 시간 걸려 찾아가서 먹는 시대다. 입이 즐거운 요리처럼, 영혼을 행복하게 하는 가르침, 위로와 치유를 제공한다면 맛집을 찾듯 절을 찾게 될 것이다. 그 실제 사례를 법륜스님이나 혜민스님의 법회에서 볼 수 있다.

사찰이 현장이 되도록

신자유주의의 바람 속에 양극화로 인한 상대적 빈곤과 박탈감의 굴레, 스펙경쟁의 굴레, 실업과 나쁜 일자리의 굴레에서 불안, 자존감 상실, 우울증 등 사회적 질병이 만연하다. 이 고통에 응답하여 기대어 쉴 곳, 명상, 상담을 통해 아픔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곳이 되어주면 그 장소가 산중이건 도심이건 불교는 시민의 삶의 현장에 함께 있는 것이다. 한편 사찰을 품고 있는 자연 환경은 마음을 쉬고 치유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는 정서적 강점이 있다. 스님들의 전법 역량이 강화되면 이와 같이 산중에서도 시민들의 삶의 현장으로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새로운 사찰을 창건할 경우 가급적 시내에 하도록 중단이 지도력을 발휘해야 한다.

사찰 바깥 현장으로 나아가도록

한편 교육과 활동을 통해 신도를 조직하면 조직된 신도는 사찰 내부 뿐 아니라 절 바깥의 활동을 사찰의 이름으로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수 있을 것이다. 포교사 옷을 입은 재가불자의 인솔 아래 요양원에서 봉사하고, 염불봉사, 지역사회 활동 참여, 시민사회활동 참여 등을 통해 외연을 계속 확대해 나가면 지역사회에서 점차 사찰과 불교의 존재감이 드러나기 시작할 것이다. 시민의 삶에서 사라졌던 불교가 시민과 지역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좋은 이웃으로 다시 등장하면 사람들의 불교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불자 감소 뿐 아니라 출가자 감소 현상, 출가자의 자질 저하 현상도 근원적으로 바꾸는 기틀이 될 것이다.

6. 사찰의 신행혁신과 관련한 과제들

불자의 전 생애를 책임지는 사찰

불자가 탄생에서 장례까지 전 생애를 사찰과 함께 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행정조직에 부합하는 전법조직

광역에서 기초까지 행정체계에 부합하는 포교 체계를 조직함으로써 행정대응력을 높이고, 포교 활동이 보다 시민들 곁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한다. 시군구 단위로 포교사단과 전법도량, 전법단을 조직한다.

공공 영역 참여에서 길을 찾아야

최근 들어 사찰에서 어린이 청소년 법회를 만들고 유지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이웃종교는 공공영역에 눈을 돌려 방과후교실, 지역아동센터, 작은도서관, 어린이집, 유치원, 마을교육공동체, 수련원, 복지관 등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지원을 받는 다양한 공공활동을 통해 간접선교 효과까지 얻으며, 신자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어린이 청소년 부문에서의 신자 비율 역전은 대학생, 청년으로 계속 이어지게 되므로 활용 가능성이 있는 공공자원은 적극적으로 유치하거나 설립하여 운영해야 한다. 이 또한 시민의 삶의 현장에서 함께 하는 불교의 모습이다.

7. 세상의 변화에 대응하는 과제들

(1) 고령화 사회, 어떻게 대응할까

최근 불교 인구의 급감은 노인 세대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같은 시기 가톨릭은 노인 신자가 2배 증가했는데, 불교에서 유입되었으며, 복지시설이나 병원 쪽에서 집단으로

종교를 바꾸는 경우가 많다고 분석했다. 노인 종교인은 불교가 가장 많은데 정작 우리 종단을 보더라도 노인을 위한 시설이나 정책은 별로 없는 현실이다. 복지관이나 요양원 등 공공 영역을 운영할 경우 인사고과에 가산점을 반영하는 등 행정적 뒷받침이 필요하며, 지역포교역량을 강화하여 병원이나 시설 포교 활동을 강화하는 정책도 함께 모색되어야 한다.

사찰에서 삶의 마지막을 가꾸도록

우리 종단의 많은 사찰은 시골에 위치하며, 전통적으로 형성된 많은 토지와 임야를 보유하고 있다. 사찰 부지에 개인용 처소를 마련하여 노인들이 자기 삶을 종교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텃밭을 가꾸고, 기도하고 공부하며, 숲을 산책하고, 절 일도 함께 거들 수 있으니 개인적으로는 최고의 인생 마무리라고 하겠다.

(2) 저출산사회,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나라는 가임여성 1인당 출산율이 1.3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은 나라이다.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100조원을 투입했지만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다. 아이를 걱정 없이 낳아 기를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 국가 차원에서 의료, 보육, 교육, 주거 지원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가장 근원적인 해결책일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해마다 15만에서 20만 건 정도의 낙태가 이루어진다. 한 해 태어나는 아이가 40만 명 정도라는 것을 감안하면 엄청나게 많은 숫자이다. 아이를 낳아서 기를 수 없는 조건이기 때문이겠지만 낙태는 어른들에게도 몸과 정신에 큰 상처가 되므로 아이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면 낙태보다는 출산을 선택할 경우가 상당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선진국은 결혼 외 출산 아동 비율이 30~50%에 이르고 있어서 국가 복지 체계를 통해 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이러한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낙태 대신 사찰 보호소를 이용하도록

대부분의 사찰은 주거가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시골에 위치한 많은 사찰은 임야와 농경지를 보유하고 자연 친화적인 곳에 있다. 또 스님들 중에는 사회복지 관련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분이 많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시골 사찰에 미혼부모 보호 시설을 설치하고, 낙태 대신 사찰에서 자랄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겠다. 아동 보호와 입양을 담당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도시 사찰은 버려지는 영아를 보호하는 체계를 갖추고, 시골 사찰에는 시설을 설립하여 보육을 담당한다면 인구절벽 시대에 오히려 희망을 키우는 일이 된다.

복지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처음 시설을 설

립하는 부담 이후에는 사찰에 큰 재정적인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반면 이러한 사업을 통해 불자들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 어린이 - 청소년 - 청년으로 이어지는 불교 취약 세대의 포교에 중요한 전환점을 만들 수 있으며, 불교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III. 신행혁신으로 가꾸는 삶

신행혁신운동 '붓다로 살자'를 통해 한국불교의 위기를 극복할 제도적 방안을 검토했지만, '붓다로 살자'가 개인의 삶을 보다 평화롭고 행복하며 가치 있게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모든 불자의 삶으로 펼쳐지지 못하고 그저 포교원 정책의 표제어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포교원은 그동안 '붓다로 살자'를 통해 불자 개인의 삶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가를 다각도로 고민하여 정리했다.

지금 여기 - 붓다로 살자

삶을 지혜롭게
마음을 자비롭게
세상을 평화롭게

1. '붓다로 살자' 불자상

붓다는 지혜와 자비를 원만히 갖추신 분이며, 세상에 평화와 행복을 구현하는 분이고, 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분이다. 그래서 '붓다로 살자'가 지향하는 불자상의 표어로는 삶을 지혜롭게, 마음을 자비롭게, 세상을 평화롭게, 지금 여기- 붓다로 살자! 라고 정리했다.

(1) 삶을 지혜롭게

▶ 자신이 본래 붓다임을 믿고 실천합니다.

나의 본래 모습 그대로 붓다의 성품임을 확신하고, 언제나 붓다답게 마음 쓰고 말하고 행동하여 평화와 행복을 가꾸는 주인공의 삶을 살아갑니다.

▶ 불법승 삼보를 삶의 의지처로 삼습니다.

붓다의 길을 밝히신 석가모니부처님과 여러 부처님들, 그 부처님들이 가르친 진리, 그 가르침을 실천하는 거룩한 화합공동체-불법승 삼보를 믿고 의지하여 고통을 극복하고 두려움 없이 붓다로 살아갑니다.

▶ 일상생활이 수행이 되도록 살아갑니다.

말하고 일하고 밥 먹는 일상의 삶이 붓다의 삶다운 가치를 담도록 늘 지금 여기에 깨어 있고, 존중하고 배려하며, 감사하고, 나누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2) 마음을 자비롭게

▶ 마음을 살피 욕심과 화를 다스립니다.

좋은 것은 내 것으로 만들고자 하고, 좋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분노 질투 짜증을 내는 것이 나 중심의 아집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고, 나를 비워 욕심과 화를 극복하고 마음의 평화를 이루며, 남을 위해 자비를 실천하며 겸허하게 살아갑니다.

▶ 이웃의 고통에 공감하고 자비롭게 보살핍니다.

마음을 열어 이웃을 바라보면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게 되고, 이해하면 가슴으로 공감하게 되며, 공감을 통해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이웃을 자비로 감싸며 살아갑니다.

▶ 자기에게 맞는 수행을 매일 실천합니다.

습관을 바꾸고 삶을 맑게 가꾸는 계율, 진리의 눈을 밝히는 간경, 마음을 밝히는 명상과 참선, 나를 낮추어 온 세상 모두를 온전히 존중하는 절, 항상 부처님을 마음에 모시는 염불, 세상을 이롭게 하는 보살행 등 자신에게 적합한 수행을 매일 실천하고, 실천 내용을 기록하여 점검합니다.

(3) 세상을 평화롭게

▶ 모든 생명을 붓다로 존중합니다.

내가 그렇듯, 모든 사람이 본래 붓다의 성품이므로 피부색, 지역, 성별, 직업, 나이 등 갖가지로 차별하지 않고 붓다로 존중하여 잘 모시며, 나아가 모든 생명과 지구 환경까지 붓다로 모시고 존중하며 보호합니다.

▶ 부드럽고 바른 말로 공동체의 화합을 도모합니다.

귀 기울여 잘 듣고, 그 뜻을 잘 헤아리며, 부드러운 표현과 바른 내용을 담아 말하는 붓다의 대화로 공감과 이해를 더하고, 갈등은 화해와 화합으로 전환하여 공동체를 건강하게 유지합니다.

▶ 나눔과 생명평화의 공동체를 가꿉니다.

내가 가진 좋은 것을 나누고 베풀며, 다소 불편함을 기꺼이 감수함으로써 욕심을 다스리고 소박하고 자유로운 삶을 누리며, 내가 있는 마을과 온 누리를 생명을 살리고 평화를 실현하는 공동체로 가꿉니다.

▶ 세상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 진리를 전합니다.

신, 운명, 이념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와 평화, 행복의 삶을 주체적이고 창조적으로 열어가게 진리의 길을 널리 알려 세상의 행복과 안락을 가꿉니다.

2. '붓다로 살자' 신행 청구

1. 매일 삼보에 예경한다.
2. 지계, 간경, 염불, 참선, 보살행 등 자신에게 맞는 수행을 생활화한다.
3. 월 1회 이상 법회에 참석한다.
4. 귀 기울여 듣고 온화하게 말한다.
5. 날마다 1가지 이상 선행을 실천한다.
6. 하루 천 원 이상 보시한다.
7. 만나는 사람마다 합장하고 공경한다.
8. 소욕지족의 정신으로 단순소박하게 살아간다.
9. 월 1회 이상 이웃을 위해 봉사한다.
10. 수행일지를 기록하고 포살에 동참한다.

3. '붓다로 살자' 공동체 청구

1. 가족과 이웃, 뭇생명을 존중하고 붓다로 모신다.
2. 어떤 상대도 비난하지 않으며 공감하고 칭찬한다.
3. 먼저 웃으며 인사하고, 환대한다.
4. 이웃 종교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5. 어려운 이웃을 보살피고 사회적 약자를 돕는다.
6. 마을과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며 참여한다.
7. 세상의 아픔에 공감하고 생명평화와 정의를 실천한다.
8. 육식을 줄이고 과식하지 않는다.
9. 물과 전기를 아껴 쓰고 쓰레기를 줄인다.
10. 가까운 거리는 걷고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이 청구를 날마다 실천한다면 개인의 삶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한국불교를 바꾸는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포교원에서는 날마다 자신의 수행을 점검할 수 있는 수행 점검표를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으며, 수행 점검을 개인이 하는 것도 좋지만 사찰이나 단체 차원에서 포살을 통해 함께 수행하는 문화를 만들어가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붓다로 사는 실천 약속

- ▶ 나의 일상을 붓다답게 가꿉니다.
 - 삼보에 예경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 오계와 청규를 날마다 마음에 새기고 실천합니다.

- 나에게 맞는 수행법을 날마다 실천합니다.

▶ 매일 수행일지를 쓰고 포살에 참여합니다.

- 수행일지를 통해 나의 하루 수행을 기록합니다.

수행일지는 조계종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거나 (<http://www.buddhism.or.kr>) 사찰, 단체를 통해 포교원에서 받습니다. (02-2011-1891~1895)

- 매주 또는 매월 포살에 참여합니다.

▶ 채식day 기부day에 동참합니다.

- 일주일에 하루(목요일) 채식합니다.

- 채식day마다 1천원씩 기부를 실천합니다. 기부는 10.27법난 기념관 건립이나, 빈곤국가 결식아동을 지원하는 (재)아름다운 동행에 할 수 있습니다.(02-730-6690)

▶ 가족과 이웃에 전법합니다.

- 좋은 불교 서적을 읽고, 불교잡지를 구독합니다.

- 내가 읽은 좋은 불서를 이웃에게 보시합니다.

- 가족, 이웃과 함께 법회와 공부모임에 갑니다.

※ 공지사항

1. 일반포교사 자격 갱신 및 복권

- 6월 11일까지 지역단 사무국으로 신청.
- 대상 2015년도 품수(20기) 및 갱신, 복권자
: 구포교사증, 신도증사본(교무금 3년분 납입, 스티커 3매 부착), 사진 2매

2. 갱신대상자 보충교육 실시

- 6월 10일 오후 2시~4시, 무각사 불교대학 강의실, 연수비 2만
- 대상 : 갱신대상자 중 연수교육 횟수 부족한 포교사

3. 제11회 전문포교사 선발 응시서류제출

- 6월 11일까지 접수

4. 분야별연수 전문교육은 온라인 동영상 교육으로 대체합니다.

현재 구체적인 교육내용과 방법은 준비 중에 있으며 계획이 확정되면 수강할 수 있도록 별도 공지하겠습니다.

분야별연수 시 현장연수와 온라인동영상교육 배점은 50:50입니다.

5. 정기법회 안내

- 7월 정기법회 : 7월 1일 오전 10시~ 송광사
- 8월 정기법회 : 8월 5일 오전 10시~ 화엄사
- 9월 팔재계수계실천 대법회 : 9월 8일~9일, 장소 추후공지

6. 개인, 팀 활동보고서 제출

- 2018년 상반기 팀 및 개인활동보고서를 7월 31일까지 소속 팀장을 경유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